

DIY, 두 잇 유어셀프

성기완 | 대중음악평론가, 3호선버터플라이 멤버

DIY는 대규모로 유통하지 않는다. 소규모로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윤추구를 극대화하지도 않는다. DIY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화는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재적으로 더 탄력이 생긴다. 상업성에 물들지 않은 자발성을 지닌 이러한 개성들이 결국 미래의 문화적 자산임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스스로’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DIY 가구

DIY라는 말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도 꽤 여러 해 된 듯하다. 이젠 DIY가 ‘당신 스스로 하라’는 뜻의 ‘do it yourself’에서이니셜을 딴 말이라는 걸 설명할 필요조차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 ‘DIY 가구’ 같은 말이 일상 생활에서 빈번히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DIY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더라도 DIY 가구가 어떤 건지는 대개 감들을 잡고 계실 줄 안다. 기성품으로 만들어져 나온 가구가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 구미에 맞게 설계하고 부품들을 짜 맞추어 만드는 일종의 ‘맞춤형 가구’ 쪽으로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을 듯하다.

DIY 가구가 보통 완제품의 가구와 구별되는 특징은 여러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사용자의 관점’이 만들기 전부터, 혹은 만드는 과정에서 반영된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만드는 사람 따로, 사는 사람 따로가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만드는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용자 특유의 개성과 필요성이 물건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DIY 가구의 핵심이다. 그렇게 하여 만든 가구는 단순히 ‘사용자에 친근한 user-friendly’ 물건이 아니라 사용자 자신의 물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어쩌면 정반대의 현실을 역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보통의 물건들은 사용자들의 평균치라는 가상의 기준에 따라 공장에서 대량생산되어 온 천지를 연결하는 유통망을 통해 우리 일상의 저변으로 운송된다. 거기에도 물론 사용자의 정신이나 요구가 서려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용자는 그 물건들을 만든 사람들이 설정한 가상의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춰야 한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사용자 자신의 개성은 마모되고 물건들을 만든 사람들의 요구에 길들여 지기도 한다. 마치 자기 자신이 개성 있게 물건을 고른 것 같은 착각을 갖지만 정작 그 물건들이 당신을 고른

것이나 마찬가지로 된다. 간단하고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

예전에는 온 천지의 사람들이 치약 뚜껑을 돌려서 열었지만 지금은 캡 형식으로 된 뚜껑을 그냥 똑딱단추 풀듯 한 번에(이른바 '원 터치로') 연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간편하게 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치약을 어느 정도 쓰고 나면 찌꺼기가 굳어 지저분해지는 단점도 없지는 않다. 예전에 치약 뚜껑을 돌려서 열고 닫던 시절에는 반대로 뚜껑을 돌려야 하니 그 절대 시간이 하는 수 없이 더 드는 거부감이 있었긴 하지만 내용물의 밀폐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캡 모양의 뚜껑보다 더 유리한 점도 없지는 않았다.

여기서 돌려 닫는 뚜껑이 좋은가, 캡 모양의 뚜껑이 좋은가를 가지고 더 따질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논점은 그 좋고 나쁨에 있지 않고 과연 돌리는 것에서부터 캡 형식으로 진화해온 치약 뚜껑의 발자취를 모든 소비자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이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종의 절대적인 변화로 생각해야만 하는가 하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돌리는 뚜껑이 달린 치약을 구하려면 인사동 같은 곳에 있는 골동품 가게나 추억의 복고품 파는 이색 상점이라도 가야만 한다. 어찌면 그런 곳에 가도 구하기 힘들지 모른다. 소비자들의 의식은 그런 변화들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을 완전한 과거형으로 놓아버리는 버릇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추억이 되려면 보다 많은 시간이 흐르거나 그것들이 갖는 과거형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 치약 뚜껑 가지고 그런 식의 의미 두기를 하는 소비자들이 거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물건을 파는 사람들조차 그것들은 등한시한다. 그렇게 하여 그 사소한 것들은 완전히 과거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 상인 모두가 굳이 그것들을 기억

하려 하기조차 귀찮아한다.

DIY는 사회적 경향에 대응한 대안적인 생산 방식

그러나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사용자들은 무엇이 좋다 무엇이 더 좋다 열심히 따지면서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듯한 느낌 속에서 생활하지만 정작 치약 뚜껑의 모양이나 방식 하나 자기 맘대로 고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일수록 내가 선택할 수 없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대량 소비사회의 본질이다. 다시 말해 '섬세한' 시선을 가지고 자기 개성을 발휘하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을 들여도 그것을 관철시키기가 보통 어렵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크게 과장은 아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개성이 강조되고 '튀는' 상상력들이 대우를 받는 절대 자유의 시대 같아도 알고 보면 일상의 세세한 대목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획일화가 지배하고 있는 몰개성의 시대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주로 점점 대량화되어 가고 표준화되어 가는 대량 소비사회의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자본주의는 이것을 '합리화'라는 단어로 요약한다. 합리화는 현실 속에서는 대량화를 근거지우는 '표준화'를 통해 모든 과정이나 절차, 대상들의 치수, 이동 속도, 이동 경로 등을 보다 완벽하게 미리 정해놓으려는 시도로 드러난다.

합리화의 진행은 비인간화의 심화와 비례한다는 것이 나의 공식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합리화를 통해 공장을 돌리는 사람들이 이득을 더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더 획일화되어 가고 비인간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DIY는 이런 사회적 경향에 대응하여 등장한 하나의 대안적인 생산 방식이라 할 수 있다. DIY는 영화, 대중음악, 저널리즘, 공연 등 대중문화의 전 장르에 걸쳐 일

DIY는 영화, 대중음악, 저널리즘, 공연 등 대중문화의 전 장르에 걸쳐 일반화되고 있다. 디지털 분야의 눈부신 발전이 이와 같은 DIY적인 생산 방식의 일반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특히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요즘이 가히 'DIY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DIY가 중요한 문화적 함의를 지닌다.

반화되고 있는 문화 생산 방식이기도 하다. 디지털 분야의 눈부신 발전이 이와 같은 DIY적인 생산 방식의 일반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특히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요즘이 가히 'DIY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DIY가 중요한 문화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음악에서 DIY는 1970년대 중반의 이른바 '펑크 폭발(punk explosion)'과 깊은 관련이 있다. 1970년대 초의 석유 파동은 팝 음악계에도 찬바람을 몰고 와 1960년대의 호황과 대조적인 불경기를 야기시켰다. 그에 따라 팝 음악계는 불황 타개를 위해 더욱 장삿속을 발휘했으며 어느 면에서는 대중의 기호에 철저히 영합하는 알파한 팝이 맹위를 떨쳤다.

또한 1960년대 이후에 예술적으로 깊이가 더해진 '록 음악'은 1970년대에 '대가적인' 면모를 갖춘 이른바 '슈퍼 밴드'들을 낳았다. 슈퍼 밴드들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기교를 뽐내는가 하면 공연 때 신고 다니는 장비도 록음악을 지망하는 아마추어 밴드들이 꿈도 못 꿀만큼 엄청난 규모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록의 자발성과 비판정신을 강조하고 아마추어리즘에서부터 출발하는 펑크 장르가 등장했고 젊은이들은 이 하위문화적인 성격의 펑크에 열광했다. 그때 나온 것이 바로 DIY 정신이다. 펑크 로커들은 슈퍼 밴드들을 올려다보기보다는 스스로 밴드를 만들고 소박하지만 자기 사운드를 내고자 하는 젊은이들이었으며 펑크 록 밴드 주위에는 그들과 정신을 공유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록 음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언더그라운드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다.

이를테면 스스로 취재하고 작성해서 만들어내는 펑크 신문, 소규모로 운영하는 작은 클럽 등이 뮤지션들과 관객들을 연결시켜 주었고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었다. 그들은 대규모 유통망을 소유하고 공중파와 연결된 프로모션 네트워크를 가동시켜 음반을 팔아치



3호선 버터플라이 3집 앨범 작업 중인 멤버들

우는 주류 대중음악판과 자신들을 구별했다. 그래서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 클래쉬(Clash) 같은 전설적인 펑크 밴드들이 공중파를 타지 않고도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었으며 이들이 공유하는 문화는 어른들이나 주류 음악 시장에서는 생소하지만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문화적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그들의 음악에는 생기가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것은 그들 자신의 목소리였다. 그들 자신이 속한 세대의 요구사항들을 가사와 멜로디 속에 담았고 석유파동 이후의 암울한 불경기에 직면한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거칠고 공격적인 사운드로 재현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자발성'을 자기 음악의 핵심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현대는 스스로 레이블의 전성기

이러한 자발성은 이른바 '인디 레이블(indie label)'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인디 레이블은 대규모 상업적인 메이저 레이블과 대립하는 일종의 DIY 레이블이다. 인디

레이블은 녹음부터 판매에 이르는 제작의 전과정을 스스로 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유통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류 유통망에 기대는 수가 많긴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주는 것 이외에는 주류 유통망의 팔아치우기에 전적으로 동참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이러한 성격의 인디 레이블이 꽃을 피웠다. 그 계기 중의 하나는 이른바 사진 심의 제도의 폐지 내지는 완화였다. 사진 심의된 음원만을 음반으로 제작하던 독재정권 시대의 잔재가 1990년대 후반이 되면서 무용지물이 되자 젊은이들은 자기 자신의 음악을 스스로 녹음해서 음반에 담은 '스스로 제작'에 뛰어들었다.

요즘은 정말 이러한 스스로 레이블의 전성기가 아닌가 싶다. 수많은 인디 뮤지션들이 수많은 레이블들을 만들어 소규모로 음반을 유통시키고 있다. 1990년대에 존재했던 '강아지 문화예술' 레이블, '인디' 레이블 등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여전히 '카바레 레이블'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넘 레코드라는 레이블은 밴드 3호선 버터플라이가 만든 레이블이며 '복숭아' 레이블은 주류 영화음악계에서 비주류적인 음악을 들려주는 뮤지션들이 만든 레이블이다.

이 밖에도 수많은 젊은 뮤지션들이 자체 제작을 통한 DIY 음악 생산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DIY 레이블이 가능해진 것은 무엇보다도 디지털 기술의 발달 덕분이다. '홈 레코딩'이라는 DIY 레코딩 방식이 디지털 음악 프로그램들의 발달로 인해 가능해졌다. 누구나 맘만 먹으면 값싼 사운드 카드를 장착한 컴퓨터 하나와 간단한 믹싱 콘솔만으로도 레코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고급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사치스러운 사운드와는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없지만 디지털 기술은 그 격차를 현저하게 줄여 놓음으로써 홈 레코딩만으로도 들을 만한 음반이 생산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DIY는 대규모로 유통하지 않는다. 소규모로 자신들의 기호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윤추구를 극대화하지 않는다. 현상유지 정도를 목표로 움직인다. 이런 작은 중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화는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재적으로 더 탄력이 생긴다. 문화예술의 정책 입안자들도 대규모 문화 행사의 지원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소규모 DIY 레이블의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상업성에 물들지 않은 자발성을 지닌 개성들이 이런 음악들 속에 들어 있고 그것이 결국 미래에는 문화적인 자산이 됨은 두말 할 나위 없다. ☺